

濟州島民과 말(馬)

진 성 기 *

제주도에 있어서 말(馬)은 아득한 탐라개벽신화인 삼성신인의 시대에 벌써 육축의 하나로 등장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도민의 민간신앙과 神話전설의 세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濟州島民의 생활에 있어서 私的으로 말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아득히 오랜 일인 것 같기도 하나, 官이 牧場을 마련하여 대대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것은 고려 忠烈王때 이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려 충렬왕 2년에 몽고는 목장을 위하여 이 耽羅섬을 점거한 뒤 쫓겨가기까지 무려 92년 동안이나 많은 조랑말을 들여다 길렀었고 몽고

* 제주민속박물관장

가 떠난 이후 李朝때까지 濟州島는 國馬를 기르고 진상하는 곳으로 되어 있었다.

이제 잠깐 《제주풍토록》과 《耽羅志》에 소개된 당시 말의 사육 현황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李健이 쓴 《제주풍토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이전은 선조의 七男 仁城君의 세째 아들이로서 15세 때 제주도로 귀양와서 8년간 제주생활을 누리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섬 중의 國馬는 여러 곳에서 치고 있고 양현에서도 역시 그러하고 있다. 馬屯은 매우 많아 天地玄黃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屯의 이름을 삼았다. 一屯의 馬匹數는 적어도 百餘匹不下하고 牧者의 수는 많어도 2~3人인데 소위 牧者라 함은 말을 맡아서 이것을 목양하는 者를 말하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 풀이 자라날 때에는 말이 죽는 일이 없으나 한 겨울과 이른 봄 풀이 없을 때에는 죽는 수가 헤아릴 수 없다. …… (中略) ……

김 만익은 말은 말이 많아서 수 천필에 이르고 신관이 入去할 때에는 遞任進上馬(3년 근무가 끝나 전임될 때 王에게 진상하는 말)를 만익으로부터 定하여 3년간 소중히 사양하고 습재하였다가 遞歸時에 임하여 진상한다. …… (中略) …… 貪汚의 관은 진상을 빙자하여 무수히 徵하여 전부 私用으로 삼아 버린다. 그는 말을 바친 功으로 관의 副總官에 이르고 나이는 80에 이르러 죽었다.

그리고 《耽羅志》의 濟州牧 목양조에 보면,

馬場은 長兀岳에서 感恩德川에 이르기까지 모두 목장이었는데 무릇 7所 38字이다(順天地玄黃으로 馬屯을 이름 지었음)

말의 수는 6450頭(每字에 群頭一名, 群副各 2명, 牧子 4명, 每所에 馬監 1명).

영문(목사때의 관청)에는 躑馬 6명이 있어 閱馬할 때 진상마를 가리고
기르고 익히고 병치료하기도 하였다(지금의 수의사).

어승생악은 제주목 남쪽 25리에 있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산밀에
서 쫓이 타는 말을 낳으니 어승생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한다.

탐라지 정의현 목양조에 보면

馬場 三場 十七字, 馬數 2,383 頭

탐라지 대정현 목양조에 보면

馬場 一場 三字, 馬數 2,552 頭

등이다.

이제 이를 다시 종합해서 제주 6,450 두와 정의 2,552 두의 말들을
합해 보면 제주도에서의 말은 10,385 마리가 된다. 이는 탐라지 편찬
당시(1651년) 제주도에서의 말의 총수효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제주도는 말로서 특징있는 고장이니 옛날에는 國馬를 친다고
해서 도민의 목장은 관에서 점령해서 私家의 말이 그 목장을 침범했다
고 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牧者만 해도 거칠어서 도민을 괴롭혀 왔다
는 古老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옛날은 동력대신 말을 사용해서, 먼 거리의 여행이나 물건의 운반, 발
발리는 일, 大小官員의 행차 때, 혼례 때의 신랑 등이 말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제주 조랑말이 도민의 생활에 알맞았다는 것은, 일제말 日軍이 버리고
간 胡馬(軍馬)는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 방치되어 있다가 4·3사
건으로 폭도의 밥이 되기도 할 정도로 버림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
고 하겠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제주도 조랑말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특색이 남
아 전한다.

여기서는 속담 한 가지와 「말뛰기 놀음」, 그리고 「대액막이」의 경우로서의 말에 말에 얽힌 제주도 풍속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말띠에 대한 속담을 살펴본다면 「말해에 오시생이면 과거를 띄와서 이름을 팔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말해(午年)의 午時에 태어난 사람은 말발 배 기둥이 꺾끗이 선 것처럼 껍 잘 산다는 뜻이라 하겠다. 특히 말띠로 태어난 남자는 대체로 성공하는 율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는 말해의 오시생으로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알리지 못한다면 사주를 이기지 못하는 결과에 빠지게 마련이어서 좋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특히 말띠 가운데에서도 병오년의 말띠는 백말띠라고 해서 여자로서는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白馬」띠의 처녀는 혼인 상대가 없어 번번히 떠 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떠 넘어 과년한 처녀가 재혼자리나 찾게 된다면 팔자가 그리 좋을 리 없으니 이래서 「백말띠 좋지 못하다」 함은 더욱 사실로 나타나게 마련인 듯하다.

다음에는 민간신앙면에서 말과의 얼거리로 「말뛰기놀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세시기》 등의 기록에 보면 제주도의 영등굿에서는 「말뛰기 놀음」(馬躍戲)이라는 놀이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월 초하룻날 제주도의 귀덕, 김녕 애월지방에서는 열두개의 나무장대를 세우고 神을 맞아서 제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긴 나무장대 끝에다 색채비단으로 말머리같이 꾸며 가지고 말뛰기놀음을 한다. 이때에 밤에는 등불을 매달아 켜게 되므로 이 祭를 燃燈祭라고 하며 이 祭는 초 하루에 시작하여 보름날에 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풍속이 되고 말았으나 아무튼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슬기를 말에 결부시킴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어 내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이 연등놀이는 전국민속경연대회때 출연해서 영예의 대통령상까지 받은 바 있는, 이 고장 굿놀이 가운데서도 유명한 무속놀이의 한 가지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색채비단으로 가장된 말머리가 등장되는 데서 더욱 흥미를 불러 일으켜 준다고 하겠다.

이밖에 민간신앙의 한가지로 「대액막이」 때의 말의 기능을 들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액막이」란 환자의 질병퇴치의 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무속의례의 한 가지인 것이다. 가령 어느 가정에 중병으로 앓고있는 이가 있다면 그 환자의 병마를 퇴치시킬 목적으로 환자와 비슷한 모습의 허수아비(草人)를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그 병마를 좋게 달래어 허수아비로 옮겨 놓고 다시 이것을 말 위에 태워 멀리 내쫓아 버리게 되는 방사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로써 그 환자의 병세는 낫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심방은 떠나가는 말과 허수아비를 향해서 「친하도액년을 막양 아무디나 마음대로 잡서」하고 말함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허수아비를 실은 채 무작정 산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의 말은 도민생활의 여러 방면, 곧 결혼할 때 신랑이 탄다거나 짐을 실어 나른다거나 또는 먼 지리를 오가는 교통수단 등의 목적외에도 사람의 질병을 퇴치시키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여 왔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이처럼 제주도민의 생활과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과 가장 친근한 가축의 하나요, 삶의 벗이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 든 연등굿놀이나 대액막이 굿놀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이 말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써왔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이 점은 그 놀라울 만치 재치있는 슬기와

선전지명에 배움되는 점이 적지 않다 하겠다.

古代로마의 「馬祭」(October Equus)때 있어서는 말머리를 농토와 농업神 마르스에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의 민간에도 말머리를 地母神 데메테르의 神話와 관련짓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말은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되는 아득한 옛 탐라개벽시대부터 비롯된 민족의 하나로서 이는 아시아 대륙의 샤아머니즘의 세계나 인도-유럽계 여러 민족의 생활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신앙의 한 가지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